

實存의 不安과 삶의 方向 定立

李 奎 浩
(文敎部 長官)

- ◇ 이 글은 全國 大學 學生處(課)長 協議 ◇
- ◇ 會와 大學新聞 主幹協議會 및 生活研究 ◇
- ◇ 所長協議會 主催로 8月8일부터 18日 사 ◇
- ◇ 이에 4회에 걸쳐 開催된 “學生 理念指 ◇
- ◇ 導를 위한 敎授세미나”에서 李奎浩 文 ◇
- ◇ 敎部長官님이 하신 特講의 全文입니다. ◇
- ◇ <編輯者 註> ◇

I. 靑少年들의 人間敎育

오늘 우리 나라 大學들에서 學生들의 生活指導를 맡은 여러 敎授님들과 함께 우리의 어려운 課題에 대한 批判的인 省察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이 모임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大學의 세 가지 機能들 중에서 人間敎育의 문제를 批判的으로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産業이 發展하면서 어디서나 靑少年들의 人間敎育의 문제가 심각한 社會的인, 政治的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産業이 發展하면서 우리의 社會的인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傳統的인 道德의 規範들이 그 拘束力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道德的인 規範들이란 傳統文化 속에 담겨 있는 精神的인 價値들이 빛

을 잃으면 合理的인 論理만으론 정당화되기가 매우 어려운 性格의 것들입니다. 만약 道德的인 規範들이 그 拘束力을 거의 잃게 되면 우리는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目標을 提示하기도 어렵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道德的인 行爲를 가르치기도, 요구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발전에 따르는 생활환경의 變化는 世代間的 間격을 더욱 넓힘으로써 世代間的 理解와 交通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간의 葛藤은 오늘날에 시작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人類歷史가 시작되면서부터 既成 世代와 자라나는 世代 사이에는 늘 보이는, 보이지 않는 對立과 葛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産業發展에 따르는 生活環境의 급격한 變化가 이러한 세대간의 葛藤을 激化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人間의 行動은 그의 意識構造의 表現이고 人間의 意識構造는 그의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相對하는 젊은 世代는 우리들과는 전연 다른 생활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經驗과 이에 따르는 敎訓을 그들에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産業의 發展과 특히 交通과 通信의 發展은 모든 사람들의 生活水準의 向上에

대한 기대를 非現實的으로 높임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現實에 대한 抵抗意識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產業의 發展으로 인한 生活水準의 向上은 결코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회 안정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物質的인 慾望의 지나친 刺戟은 그것이 賢明하게 文化的으로 昇華되지 아니하고 社會的으로 바람직하게 調節되지 않으면 매우 破壞的인 作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發展된 產業社會들이나 산업발전을 指向하는 나라들에선 어디서나 靑少年들의 人間教育의 問題, 특히 그들을 위한 價値觀의 教育의 問題가 매우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처럼 國土가 分斷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의 對立되어 있는 狀況 아래서는 靑少年들의 價値觀教育의 問題는 더욱 重大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靑少年들은 理想主義的인 傾向으로 인해서 現實에 대한 不滿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現實에 대한 不滿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發展을 위한 役割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現實에 대한 不滿이 誤導되면 性格이 다른 對立과 體制에 대한 幻想的인 期待로 變質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늘 자기의 밥그릇보다 남의 밥그릇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인데, 남의 밥그릇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는 그것을 더욱 크게 想像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데올로기의 幻想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많은 事實적인 證據가 提示되어도 그러한 幻想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大學에서 人間教育을 맡은 우리의 題課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分斷國家라도 獨逸의 경우는 우리와는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곳은 서쪽과 동쪽의 交通과 通信이 완전히 斷絶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데올로기의 虛偽意識에 의해서 완전히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양쪽의 現實을 그대로 比較할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俗談에 서울을 가 본 사람과 안 가 본 사람이 서로 우기면 안 가 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人間은 누구나 보지 못한 것을 實相으로 믿으려는 傾向을 가졌지만 특히 우리의 경

우에 있어서는 現實에 不滿을 품은 젊은이들은 이데올로기의 幻想의 捕虜가 되기 쉽습니다. 한번 이러한 幻想의 捕虜가 되면 그들은 어떤 決定的인 衝激을 받기 전에는 現實感覺을 되찾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大學에서의 人間教育의 題課가 더욱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時代의 普遍的인 狀況이나 우리의 특수한 形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靑少年들 특히 우리의 젊은 知性人들을 위한 人間教育이 매우 어려운 題課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에 失敗해도 된다고든가 失敗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普遍的으로는 人類歷史의 하나의 轉換期라고 할 수 있는 時代的인 狀況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形편으로는 宿命的인 이데올로기의 對立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靑少年들 특히 내일의 指導層이 될 大學生들의 人間教育에 있어서 바람직한 成果를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 國家發展과 實存의 不安

우리는 現在 發展을 위해서 모든 努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自由世界나 共產世界를 막론하고 先進 產業國家들이나 이른바 發展途上國家들의 구별 없이 모든 나라들이 發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른바 「發展」이 참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참다운 의미의 發展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특히 發展途上國家들에서는 發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그 目標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바라보는 目標가 없는, 指向할 모델이 없는 發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50年代와 1960年代에 있어서는 低開發國家들이나 그들을 원조하는 先進國家들에 있어서도 發展의 모델은 西歐 產業國家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가는 西歐 產業國家들을 뒤쫓아 가면서 模倣하는 것이 發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西歐 產業國家들의 模倣을 發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發展을 경제적인 國民總

生産이나 一人當 國民所得의 數値에 따라서 測定하려고 합니다. 發展이란 바로 경제적인 成長을 뜻한다고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經濟적인 成長을 土臺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限界까지는 경제적인 成長이 발전을 위한 必須條件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經濟적인 成長이 곧 發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一人當 國民所得의 數値로서 한 사회의 발전의 정도를 測定하려는 것은 매우 非現實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産業化가 우리의 自然을 破壞하고 생활환경의 變化가 인간의 삶을 傳統으로부터 단절시킨다면 그것은 우리의 共同的 幸福한 삶을 위한 發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自然의 支配가 아니라 自然과의 調和, 傳統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傳統과의 연결이 우리의 의미 있는 共同的 삶을 保障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責任 있는 知識인들이 警告하는 生態的인 危機, 人類歷史의 終末 그리고 人間性的 疎外 등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發展을 위한 努力을 지속하면서 그 目標을 다시 省察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目標에 대한 省察이 없는 發展을 위한 우리의 努力이 사실은 우리를 周邊에 많은 不安을 擴散시켰습니다. 우리의 感受性이 예민한 靑少年들이 이렇게 擴散되어 가는 不安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人間은 自然의 품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人間性은 自然과의 調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가 자라난 故鄉의 山川에 대한 記憶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이 늘 그의 마음 밑바닥에 품고 있는 自然의 風景은 그의 精神的인 安定을 위한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의 彷徨도 역시 朴木月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自然과의 調和를 저버리지 않았습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喜怒哀樂이 自然의 보금자리 안에서 여과되었습니다. 人間의 어떤 외로움도 그러한 보금자리 안에서 마음의 糧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人間은 원래 傳統의 保護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人間性은 傳統文化의 울타리 속

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傳統文化가 간직한 倫理的인 規範들이 그의 삶과 행동을 規制하고 傳統文化 속에 담긴 價値들이 그의 人間性을 鑄造했습니다. 인간은 傳統의 요람 속에서 그의 人間性과 그의 삶을 위한 方向을 定立했습니다. 人間은 生物學的으로는 넓은 可塑性만을 가진 불완전한 동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人間은 文化的인 傳統의 保護 속에서 미로소 일정한 삶의 方式을 익힙니다. 따라서 인간은 흔히 現代의 知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우 철저하게 傳統에 依存하는 存在입니다. 人間이 傳統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답답하고 文化的 發展을 위한 創造的인 課業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文化的 創造도 傳統에 의존해서만 可能한 것입니다. 어쨌든 人間의 安定된 삶은 傳統의 保護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傳統의 保護는 인간성의 성장을 위한 不可缺한 條件이며 따라서 인간은 傳統의 保護 안에서만 安定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른바 目標에 대한 省察 없는 발전에 의해서 인간성의 요람이었던 自然의 調和와 傳統의 保護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自然環境이 公害를 통해서 破壞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開發을 통해서 유감스럽게 變形되어 감으로써 自然의 조화는 깨뜨려져 가고 있습니다. 文化環境은 社會構造의 급속한 變化를 통해서 점점 傳統과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人間은 自然의 調和와 傳統의 保護를 박탈당한 채 매우 複雜하고 매우 빨리 변하는 社會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靑少年들은 그들의 人間性이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할 搖籃에서 追放되어 낯선 세상에 방치된 셈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不安할 수밖에 없습니다.

自然의 調和와 傳統의 保護 외에도 傳統社會에서는 垂直的인 또는 水平的인 유대관계를 보장하는 삶의 共同體가 人間性的인 安定된 搖籃의 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共同體가 이른바 발전을 통해서 利害關係에 의해서만 얽힌 쌀쌀한 競爭社會로 내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競爭은 自由社會 안에서는 발전을 위한 起爆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紐帶關係가 사라진 競爭社會는 人間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市場經濟體制 안에서 만약 모든 價値가 물질적인 수량으로 계산되고 傳統的인 삶의 共同體 고유의 따뜻한 紐帶關係가 치열한 競爭關係로만 대체되면 인간은 不安할 수밖에 없습니다. 感受性이 예민한 우리의 젊은이들은 自然의 調和, 傳統의 保護 그리고 삶의 共同體 등을 빼앗긴 채 낯선 세상에 외롭게 내던져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不安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奉來의 「정계천」은 이러한 불안의 고통을 캄캄한 우리들의 實存이 뼈 부서지는 비명을 울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既成世代가 우리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는 사이에 젊은 세대는 더욱 不安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發展은 우리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目標指向的으로 調整하지 않으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들을 產出한다는 것을 알아 둘 必要가 있습니다.

III. 삶의 方向 定立과 超越의 意義

自然의 調和와 傳統의 保護와 삶의 共同體가 모두 威脅받고 있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人間들은, 흔히 現實을 거부하면서 그 對立命題를 理念化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의 使命과 삶의 意味를 찾고 그리고 그러한 理念의 旗幟아래 모인 集團에 스스로를 연결시킴으로써 實存의 외로움을 달래고 그 不安을 克服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大學들의 많은 理念씨클들이 이러한 구실을 하는 집단들입니다. 외롭고 不安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러한 集團 안에서 이른바 共感帶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외로움과 不安을 克服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롭고 不安하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이른바 “共感帶”의 捕虜가 되어 버리곤 합니다. 한번 이러한 捕虜가 되면 理性的으로 說得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理性的의 눈이 어두어지면 점차 現實感覺이 둔해지고 따라서 과격한 行動을 서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人間이란 원래 스스로의 個體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存在로서 늘 個體의 담을 넘어서 다른 人間들과의 紐帶關係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啓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存在입니다. 따

라서 바람직한 紐帶關係를 保障하는 共同體는 人間다운 삶을 위한 必須的인 前提입니다. 그리고 人間이란 그의 삶의 世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未來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存在입니다. 따라서 삶의 世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理解와 앞날에 대한 展望을 포함한 理念的인 方向定立은 人間の 바람직한 삶의 不可缺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知的인 慾求가 強하고 感受性이 예민한 大學生들이 그러한 理念集團에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그들의 이른바 共感帶를 찾으려는 것은 拒否할 수 없는 人間으로서의 기본적인 慾望의 충동에 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理念集團이 政治的인 이데올로기의 意識化를 위한 工作에 利用된다는지 또는 젊은 知性人들이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捕虜가 되어서 더 넓은 理性的인 대화를 拒否하고 따라서 거둬진 對話와 거둬진 超越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眞理의 探究와 이를 통한 知性的의 성숙에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理念集團을 참다운 眞理探究를 위한 共同體로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大學은 원래 眞理의 탐구를 위한 共同體였습니다. 大學이 學問研究를 통한 眞理探究라는 그 固有의 課題에 충실하게 되면 政治的인 이데올로기의 意識化를 위한 理念씨클은 그 意味를 잃게 될 것입니다. 大學이 學問研究를 통한 眞理探究를 위한 共同體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거나 단편적인 知識과 직업적인 技術만을 傳達하면서 삶의 理念的인 方向定立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난 歪曲된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나라 大學들에서의 政治的인 이데올로기의 意識化를 위한 理念씨클들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理念씨클 그 自體가 잘못이 아니라 大學이 그 固有의 기능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는 데 問題가 있는지 모릅니다.

教育은 자라나는 世代를 既成社會體制 안으로 받아들여서 生活規範과 社會秩序를 內面化시키고 그 體制에 적응시키는 것을 第1次的인 課題로 삼는 것이 사실입니다. 社會的인 公教育은 역시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그 社會體制 안에서 生活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 體制의 存續과 발전을 圖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시 말하면 社會的인 公教育이 그 社會體制에 抵抗하고 그 社會體制를 파괴할 사람을 教育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人間教育은 既成社會體制에 대한 適應만을 指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人間은 그 社會體制的 主體로서 既成社會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解決하고 必要하면 既成社會를 改革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人間은 社會的인 存在로서 그 社會 속에 內在하는 存在이지만 또한 人間은 그의 社會를 늘 超越하는 그러한 存在입니다. 그의 社會를 超越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앞날에 대한 새로운 希望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存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人間教育을 위해서는 既成社會體制에 대한 적응만이 아니라 人間存在의 基本構造에 주어져 있는 超越이 함께 考慮되고 함께 尊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適應만을 指向하는 教育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成功할 수도 없습니다. 人間에게 生命의 活力을 부여하는 것은 늘 새로운 未來展望과 이에 따르는 앞날에 대한 希望입니다. 人間教育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文化創造와 政治秩序에 있어서도 人間存在에 本質的으로 주어져 있는 超越이 重大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自由世界나 共產世界를 莫論하고 體制適應만을 위한 人間教育은 失敗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共產世界에 있어서의 體制管理를 위한 철저한 洗腦教育도 그것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希望을 주지 못하는 한 失敗하게끔 運命지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世界到處에서 産業化와 더불어 靑少年問題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어디서나 한결같이 效果的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적응만을 要求하면서 超越을 充足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世代가 既成社會體制에 대해서 批判적이고 抵抗的인 것은 그것만은 나무랄 수 없는 性格의 것인지 모릅니다. 教育的으로 重要的인 것은 그들의 批判과 抵抗이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指導하고 그들에게 바람직한 未來에 대한 展望을 提示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希望을 주는 일입니다. 人間教育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의 健全한 삶의 方向定立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人間的인 紐帶關係와 眞理探究를 위한 共同體를 제공하고, 그들의 過激한 이데올로기의 意識作業만을 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전한 삶의 理想的인 方向定立을 돕고, 그들의 批判과 抵抗만을 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提示하고 그들에게 希望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Ⅳ. 이데올로기로서의 自由와 平等

우리의 젊은 大學生들의 삶의 理想的인 方向定立을 위해서는 우선 教條的인 이데올로기의 유혹을 克服하게 하는 것이 重要的인 일입니다. 젊은이들은 언제나 정열에 넘치고 理想主義的인입니다. 따라서 냉정한 理性的인 省察과 眞摯한 現實的인 接近을 비약해서 독단적인 觀念의 捕虜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大學에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大學에서는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人間教育의 核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政治的인 概念들과 政治的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批判的인 省察은 그것이 理想的인 삶의 方向定立을 위한 基礎作業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흔히 그 捕虜가 되는 教條的인 觀念들의 代表的인 것이 自由와 平等입니다. 모든 과격한 政治的인 理論들은 거의 이 두 觀念들에 歸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우리가 具體的으로 어떻게 하면 참다운 自由를 누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自由를 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自由를 누릴 수 있는 삶의 條件들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行動을 規制하는 모든 規範들과 制度들에 抵抗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흔히 어떤 平等이 바람직하고 公正한 平等인가를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平等을 외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平等의 限界가 어디에 있고 平等과 自由가 어떻게 調和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無條件 모든 人間은 平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行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社會的으로는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自由와 平等이 서로 制限하고

우리는 젊은 知性人들을 위해서 그들의 不健全한 世族들만을 脫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듯 서로 對立될 수 있는데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무조건 極端的인 自由와 平等을 同時에 요구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自由와 平等은 미묘한 關係를 가지고 있습니다. 自由를 增進하게 되면 平等은 이내 금이 가게 되고 平等을 指向하려면 自由를 制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擇一할 수도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平等이 없으면 自由는 大多數의 不自由를 가져올 것이고 自由가 없으면 平等은 無意味하게 될 것입니다.

人間的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自由에는 限界가 있습니다. 그것은 自由를 制限하기 위한 限界가 아니라 모두가 自由를 누리기 위한 限界입니다. 自由에는 늘 남의 自由를 尊重해야 될 義務가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自由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經濟的인 條件과 社會的인 制度와 道德的인 秩序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人間的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平等에도 限界가 있습니다. 그것은 平等을 制限하기 위한 限界라기보다는 公正性을 위한 限界입니다. 하루한 시간 일하는 사람과 하루 다섯 시간 일하는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公正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不公正한 平等은 바람직한 平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能力과 努力의 차이를 무시하는 平等은 個人的으로 社會的으로도 發展을 阻害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能力을 最大限 발휘해서 努力할 수 있는 自由가 주어지면 즉시 平等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能力이 서로 다르고 努力의 정도가 서로 다른 人間들이 平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힘이 作用할 수밖에 없습니다. 平等을 위해서는 自由가 制限되고 自由를 위해서는 平等이 制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極端한 形態의 自由와 平等은 兩立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社會的인 相互作用으로서의 人間的 行동을 위한 自由에는 限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競爭的인 생활환경 안에서 人間的 삶을 위한 平等에도 限界가 있습니다. 이러한 限界는 自由와 平等의 伸張을 위해서도 바르게 認識되어야 합니다. 혼

히 젊은이들의 過激한 極端主義는 이러한 限界를 無視합니다. 그러한 極端主義는 自由와 平等의 調和뿐만 아니라 自由와 平等 그 自體를 破壞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極端은 眞理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不徹底한 折衷을 指向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中庸이 眞理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成熟한 知性的인 洞察과 理性的인 判斷을 必要로 합니다. 過激한 極端主義는 그것이 自由를 標榜하든 平等을 標榜하든 그 理想을 實現할 수 있는 條件들을 破壞하는 일이 많습니다.

共產主義者들은 늘 解放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解放은 自由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 다. 共產主義者들은 늘 階級 없는 社會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社會는 平等을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官僚的인 統制를 통해서 自由는 사라지고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를 통해서 平等은 無意味하게 되었습니다. 解放과 統制의 辯證法이 自由를 抹殺했고 階級鬭爭과 階級獨裁의 辯證法이 平等을 抹殺했습니다. 社會的인 條件과 歷史的인 狀況에 따라서는 自由와 平等을 위해서 革命的인 改革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價値들은 쟁취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自由와 平等이 人道的이고 道德的인 價値들이라면 그것들은 非道德的인 方法으로는 그 窮極的인 實現을 期待하기가 어렵습니다. 人間的 人格을 존중하는 人道的이고 道德的인 原理 아래서만 自由와 平等은 빛을 발할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흔히 共產主義는 理論은 좋지만 實際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共產主義國家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現象들을 現實的인 여건들의 特殊하고 우연한 결과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解放과 統制의 辯證法, 階級鬭爭과 階級獨裁의 辯證法은 共產主義理論의 本質的인 核心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解放이 自由가 아닌 統制로 移行하고 階級鬭爭이 平等이 아닌 階級獨裁으로 移行하는, 곧 解放이라는 命題가 統制라는 反對命題를 가져오고 階級鬭爭이라는 命題가 階級獨裁라는 反對命題를 가져오는 그러한 辯證法을 말합니다. 嚴格한 教條的인 世界觀의 統制 속에서 모든 創意性이 고갈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이를 아래서의 嚴格한 一黨獨裁體制 안에서는 北韓과 같은 父子承繼도 우연한 현상만은 아닙니다. 體制로서의 共產主義는 鬭爭과 統制와 獨裁와 特權의 自轉裝置에 틀림없습니다. 自由와 平等은 이러한 自轉裝置에 의해서 排除되고 있습니다. 共產主義體制는 이미 오래전에 自由와 平等의 理想을 背信해 버렸습니다. 全體主義의 통제 속에서 자유는 窒息하고 있고 絶對主義의 통치 속에서 평등은 意味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판적인 眼目과 現實의인 感覺이 없는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捕虜가 된 사람들에게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V. 正義가 무엇이나

自由와 平等은 인간의 人格을 존중하는 道德的인 命命을 따르면서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힘 새 없는 발전과 體制의 惰性을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改革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價値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自由와 平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正義에 의해서 가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正義를 위해서 個人的 自由가 제한될 경우가 있고 正義를 위해서 機械的인 平等이 止揚되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人間의 自由가 個人的 貪慾과 연결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道德的인 自制가 요청되고 社會的인 規制가 요청됩니다. 人間社會의 복잡한 영역들에서의 기계적인 平等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機械的인 平等은 人間의 個性의 존중과 能力의 發揮를 阻害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自由는 삶의 共同體 안에서 남의 自由를 구속하지 않는 自由라야 하며 우리가 指向해야 할 平等은 같은 人間으로서의 同格的 待遇이지 個性과 能力의 차이를 止揚하는 同等은 아닙니다. 人間의 自由가 共同的 삶과 人間的인 紐帶關係를 해쳐서는 안 되고, 바람직한 共同體 안에서는 人間이 그의 資質과 能力에 따라서 成就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많은 責任을 져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權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自由와 平等이 正義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自由·平等·正義 세 가지 概念들 중에서 正義가 上位 概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正義를 위한 삶만이 人間의 삶으로서 意義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正義를 위한 죽음이 영원한 삶을 意味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知性人들의 人間教育을 위해서 正義의 概念에 대한 바른 理解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正義를 위한 情熱은 흔히 조종되고 오도되고 그리고 政治的으로 社會的으로 誤用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人間은 흔히 個人的인 慾求나 主觀的인 表象에 正義의 名牌를 붙이고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바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者가 正義라는 것입니다. 물론 正義가 무엇이나에 대한 客觀的인 基準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正義가 무엇이나는 것은 哲學的인 탐구의 對象만이 아니고 人間의 삶을 위한 중요한 問題입니다. 특히 正義에 대한 理性的인 省察은 젊은이들이 獨斷的인 觀念의 捕虜가 되거나 이데올로기의인 虛僞意識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現代의 學者들 중에는 正義의 概念을 經濟的인 分配나 政治的인 統治의 문제들과만 관련시켜서 理解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經濟的인 分配의 문제나 政治的인 統治의 問題가 人間의 社會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事實이며 따라서 그런 問題들이 正義의 概念 안에서 중요한 位階를 차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正義의 概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人間의 生活에서의 道德律의 문제입니다. 正義가 무엇이나, 道德의 命命을 따르는 것이 正義라는 것입니다. 만약 人間의 生命을 소중히 여기고 人間의 人格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道德律이라면 그것은 곧 正義의 核心입니다. 나의 行動이 普遍的인 法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 또는 달리 표현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倫理의 基本的 法則이라면 이것은 正義의 基本的인 原則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正義의 概念에서 이러한 道德性을 배제하고 그것을 社會的인 經

濟的인 權利와 關連시켜서만 理解한다면 우리는 그 개념을 잘못 理解할 可能性이 많습니다. 正義란 첫째로는 역시 道德性을 뜻합니다.

둘째로는 正義는 人間의 社會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交換과 分配에서의 公正性을 말합니다. 社會的인 役割이든, 經濟的인 物質이든 公正하게 交換되고 分配되는 것이 正義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公正이라는 것은 반드시 均등이라는 뜻에서의 平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均等한 分配가 公正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적게 한 사람이 均等하게 分配를 받는 것이 반드시 公正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社會生活에서의 모든 交換과 分配는 均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公正해야 됩니다. 正義는 반드시 交換과 分配의 均等を 要求하는 것은 아니지만 交換과 分配의 公正性을 반드시 要求합니다. 能力과 努力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人間으로서의 같은 대우를 받더라도 모든 것을 均等하게 分配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人間으로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公正性의 要請이 아니고 道德律의 要請입니다. 따라서 모든 人間에게 人間生活을 위한 必須的인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道德律의 要請이고 그 이상의 分配에 있어서는 能力과 努力의 差異를 고려하는 것이 公正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公正한 分配의 客觀的인 基準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째로 正義는 國家的인 統治와 政治的인 支配에 있어서의 正當性을 意味합니다. 人間의 社會生活에 있어서는 役割分擔은 불가피하고 必須的인 일입니다. 따라서 人間社會에는 어쩔 수 없이 支配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支配體制 또는 統治體制 안에서는 責任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權限이 많아지고 權力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權力體制의 正當性의 문제입니다. 正當한 權力은 正義로운 것입니다.

封建主義時代에 있어서는 權力體制는 세습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正當성은 血統의 問題와 連結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社

會에서는 合法性이 그 權力體制의 正當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共產主義世界에서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그 權力體制의 正當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發展途上國家들에서는 여러 가지 國家的·社會的 課業들의 수행능력이 그 權力體制에 正當性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共產世界와 自由世界에서 모두 狀況의 변화와 政治的 機能의 擴大로 인해서 權力體制의 正當性의 危機가 논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狀況 아래서도 民主主義를 저바릴 수 없는 한 國民을 위한, 國民에 의한, 國民의 權力만이 正當한 權力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째로 正義는 弘益性을 뜻합니다. 社會적인 公益과 國民의 福祉 또는 國家的인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 正義라는 것입니다. 正義라고 하는 개념에는 道德性이나 公正性, 正當性 外에 이러한 實用的이고 効用的인 측면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正義의 概念의 이러한 實用的이고 効用的인 측면으로서의 弘益性을 배제하면 우리는 正義를 위한 판단에 있어서 主觀的인 概念이나 形式論理에 치우칠 염려가 있습니다. 社會의 公益과 國民의 福祉와 國家의 建設에 실제로 이바지하는 것은 正義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正義를 위해서 정열을 쏟는 것이 젊음의 特權이라면 正義가 무엇인지를 理性的으로 성찰하는 것은 知性的인 과제입니다. 우리는 成熟한 知性을 통해서만 獨斷的 觀念이나 主觀的 幻想의 捕虜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觀念이나 幻想을 偶像化해서 正義를 위한 情熱을 거기에 쏟는 일이 많습니다.

Ⅵ. 正義社會의 具現

우리는 正義社會의 具現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正義社會란 첫째로는 기본적인 道德律이 拘束力을 갖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人間의 人格이 존중되는 社會를 말합니다. 人格의 존중에는 기본적인 自由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수준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니다. 우리의 國家安保와 經濟建設은 이러한 基本的인 自由의 보장과 인간다운 生活水準의 보장을 통한 人格의 존중을 最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市場經濟體制 안에서의 商業主義로 인해서 이러한 目標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闡明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正義社會는 分配가 公正한 社會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公正한 分配라는 것은 無條件均等한 分配가 아니고 능력과 노력에 相應하는 分配를 말합니다. 이러한 分配는 個人的·國家的 發展을 향한 動機賦與를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능력과 노력에 대한 代價가 없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分配는 모든 인간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需要의 充足을 前提로 하고서만 正義로운 分配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發展途上國家들에서는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分配가 기본적인 需要를 충족받지 못하고 非人間的인 生活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남겨둔 채 資本을 축적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同胞愛와 共同體意識 그리고 이에 근거한 社會的 政策 그리고 발전과 성장의 持續化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세째로 正義社會는 모든 國民이 權力體制의 正當性을 인정하고 政府를 信賴할 수 있는 社會를 말합니다. 우리 政府는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지향하고 있고 국가적인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 最善을 다하고 있고 教育·文化·經濟의 여러 영역들에서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社會的인 不條理와 不正腐敗의 一掃를 통해서 民主的인 秩序의 정착과 信賴風潮의 조성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植民地統治를 받은 경험이 있는 發展途上國家들에 特有한 否定的인 精神風潮를 우리는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否定的인 精神風潮가 아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正義社會는 弘益性이 지향되는 사회입니다. 社會的인 公益이 존중되고 國民의 福祉가 증진되고 모두가 國家建設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國民的인 노력

과 社會的인 역량이 國民民福을 위한 國家建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力量도 다른 곳에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歷史的 또는 國際的 狀況입니다. 우리는 國家建設을 위한 目標指向的인 發展을 통해서만 正義社會를 위한 道德性, 公正性, 弘益性의 原理들을 실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正義社會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發展은 우리 모두를 위한 人間다운 삶의 條件들을 創造하는 데 目標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目標는 體制를 위한 體制의 強化도 아니고 成長을 위한 經濟의 成長도 아닙니다. 體制의 強化와 經濟의 成長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의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發展을 위해서는 教育과 文化的 發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目標의 成就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 大學教育의 質的인 水準의 向上이 매우 큰 意義를 가졌습니다. 大學에서의 學問研究와 人間教育과 社會奉仕의 質的인 水準의 向上을 말합니다. 學問과 技術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래서 大學教育의 質的인 水準을 높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惰性들을 타파하고 우리는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學問과 우리의 文化的 發展 그리고 우리의 科學과 技術의 發展 그리고 더 責任 있는 指導層의 養成, 이런 과업들이 우리 나라 大學教育의 質的인 水準의 向上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젊은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理想主義와 그들의 정열로 인해서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過程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한 대가로서의 忍耐과 노력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結果만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大學教育의 質的인 水準의 향상을 통해서 科學과 技術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高級人力과 責任 있는 指導層이 양성되어서 현재 요청되는 經濟跳躍과 民主主義의 土着化가 이루어지고,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통해서만 正義社會의 具現이 가능하고, 正義社會의 具現이 우리들에게 참다운 自由와 참다운 平等을 보장할 것

입니다. 만약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結果만을 爭取하기 위해서 과격한 行動을 하므로써 그 過程들을 파괴해 버리면 결국 그 理想의 實現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生存과 우리의 目標指向의인 발전과 우리의 理想의 實現을 위해서 現實에 대한 銳利한 洞察力과 未來에 대한 밝은 展望을 가진 그리고 知識과 技術에서 國際的 競爭力을 갖춘 그런 高級人力과 내일의 指導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大學生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Ⅶ. 開放的인 共同體

여러 教授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大學教育의 質的인 水準의 向上을 위해서 타파해야 될 舊習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學園騷擾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學園騷擾로 인한 休講이나 休校 없이 學業을 지속하면서 이에 成功的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몇몇 大學들 안에는 騷擾를 위한 要員들을 意識化的 作業을 통해서 계속 산출해내는 自動裝置가 設置되어 있습니다. 이 裝置는 自動的으로 작동하면서 外部의 보이지 않는 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學業의 中斷 없는 持續化에 이어서 學園騷擾의 克服을 위해서 이룩해야 할 제 2단계의 과제는 이러한 데모의 主動者를 산출하는 自動裝置를 無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自動裝置를 無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大學生들이 研究와 學習에 열중하도록 하면서 質的인 水準이 보장된 勉學에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 주고 건전한 삶의 方向定立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責任입니다. 그들의 意識化作業을 뒷받침하고 있는 社會哲學의 이데올로기의 性格을 간파할 수 있는 批判的인 眼目을 길러 주고 그들의 이른바 共感帶를 대신할 수 있는 따뜻한 人間的인 紐帶關係를 學問研究를 통한 眞理探究의 共同體 안에서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靑少年들은 孤獨하고 不安합니다. 그들을 보호했던 自然, 傳統, 家庭 등이 번질해 가고 있습니다. 尹善道의 時調에 나오는 외로운 선비

는 水石과 松竹과, 동산의 달을 벗삼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金瓠鬮의 성북동 비둘기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콩알 하나 적어 먹을 마당도 없고, 가는 데마다 砲聲이 메아리쳐 이리 저리 쫓겨 다닙니다. 오늘의 靑少年들은 세력장의 비둘기처럼 불안합니다. 이러한 不安으로 인해서 우리의 大學生들은 그들끼리의 共感帶를 찾고 그 안에서 서로 體溫을 나누면서 極端主義的인 觀念을 意識化하고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서 과격한 行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집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들끼리의 共感帶를 대신할 수 있는 따뜻한 人間關係를 보장하는 開放的인 共同體가 필요하고 極端主義的인 觀念을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의 水準의 學問이 필요하고 이데올로기적 虛僞意識을 대신할 성숙한 知性을 통한 건전한 삶의 方向定立이 필요하고 과격한 行動을 대신할 理性的인 省察이 요청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提供할 責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責任을 수행하는 데 最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教授님들과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운 그리고 너무 무거운 責任인지 모릅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우리의 課業은 物質文明과 產業社會와 開發途上의 社會가 지닌 문제들과 모순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不可能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責任이 무엇이며 우리의 課業이 어떤 性格의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이미 그 責任과 그 課業을 받은 수행한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던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經驗과 成果가 우리가 우리의 責任과 課業의 수행에서 成功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世代의 主人이 될 젊은 靑少年들에 대한 우리의 窮極的인 信賴가 우리에게 그 무거운 責任과 그 어려운 課題의 수행에 있어서 希望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기어코 우리의 젊은 이들의 人間教育을 위한 責任과 課業을 成功的으로 수행해야 되고 또한 成功的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